

국토교통부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불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

< 보도 내용 (채널A, 7.19) >

◆ “같은 길인데 마일리지 5배 차이”..이용자 분통

- 같은 거리를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적립액이 제각각이며, 적립에도 몇 달씩 걸리다보니 이용자 불만....국토부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.

□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사업으로, ①출·도착 버튼 입력(GPS 활용), ②즐겨찾기 구간 설정, ③도보수 측정(이용자 동의시)의 방식으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.

□ 동일한 거리를 이동함에도 적립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실제 이용자가 이동한 거리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- 실제 이동한 거리를 산출하기 전에 이용자가 적립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본 적립금(일반 50원, 청년·저소득층 70원)만 적립되는 것으로 확인되나, 실제 이동 거리를 산출한 후에는 이동 거리에 비례한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일리지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

※ 예시: 일반층 A씨가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마일리지 적립 예상 금액을 확인할 경우 표출되는 문구
- 대중교통 이용 확인 전까지: 대중교통 이용내역 확인 중
- 대중교통 이용 확인 후~이동거리 산출 전까지: 50원
- 이동거리 산출 후: 실제 이동거리에 비례한 금액(2000원 미만 시 최대 250원)

- 또한, 출·도착 버튼을 입력하는 경우, GPS 오차*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제 이동 거리와 마일리지 적립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* 건물밀집 지역, 실내 등 GPS 신호가 약한 장소의 경우 GPS 오차가 증가

□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이동거리 산출 및 마일리지 계산, 마일리지 적립까지 소요 시간이 증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관리시스템 서버 증설, 기술적 개선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	책임자	과 장	백승록 (044-201-5080)
		담당자	사무관	박주연 (044-201-5087)

